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차세대 리더를 위한 교회학교 배움의 장’

SSA Shining Saturday Activities

차세대 리더를 위한 교회학교 배움의 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평일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지만, 토요일만큼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발레와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어요. 고학년이라 발레는 전공이 아니면 배울 곳이 없었는데 SSA에서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5학년 백다운)

“가야금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열심히 배워서 선생님처럼 저도 가야금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후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서 즐거워요.” (1학년 박서연)

“날씨가 추울 때도 비가 올 때도 언제나 실내에서 배드민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SSA에 오는 것이 기대돼요.” (2학년 김민서)

세상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교회학교 배움의 장 SSA(Shining Saturday

Activities)는 작년 10월 16일 개강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입시 위주의 틀에 박힌 학교 교육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고 즐기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즐거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부 임재철 목사는 개강 후 5개월간 SSA가 조금씩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고 했다. SSA는 신앙 위에 세워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지닌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돕고 있다. SSA에 오는 아이들은 원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



해 볼 수 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수시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들이 요청하는 강좌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다. 수업은 전문 강사에 의해 50분간 진행되며,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수업 전이나 후에 예배를 드린다. 현재 발레, 코바늘,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 배드민턴, 풋살, 농구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종이랑 스탬프랑, 펜싱, 베이커리, 초급 코딩 강좌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SSA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 광림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전도의 통로로도 쓰임 받고자 한다.

임재철 목사는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평일을 책임지는 광림 어린이집과 샤이닝키즈, 스쿨, 유스, 그리고 토요일을 책임지는 SSA와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주일학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교회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sunday school’이 아닌 ‘sevenday school’이 되는 것이 광림교회 교회학교의 비전입니다. 아이들이 SSA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SSA를 통한 교회학교의 미래를 제시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집중된 SSA강좌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해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SSA의 발전과 광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학부모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 SSA 수강 신청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광림교회 교회학교(02-2015-1178)를 통해 가능하다.

박희윤 기자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누가복음 17장 5~10절)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언제나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간구는 자신들에게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죄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나의 믿음 위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5절)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뿔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과거에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킬 능력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이 충족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진실성과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는 지금보다 더 많은 믿음, 더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10절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뿔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순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겨자씨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며 그늘을 만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으며 힘과 능력을 함께 가져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둘째, 자기부정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함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순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7-8절)고 말씀하시며 종의 비유를 통해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갖지 않고 따릅니다. 신학자

인 마이어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세 가지의 정신을 이야기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확증된 삶은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좋고 기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모세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10절)고 말씀하며 결론을 내리십니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와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맡겨진 본분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고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남선교회, '북한의 인권과 선교' 리더십 세미나

하나님 주신 선교 비전에 앞장서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



광림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3월 13일(주일),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리더십 세미나 및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교구회장과 개체 선교회장을 포함 230명이 참석하여 크리스천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국내 지성전 10개와 해외 10개국 선교센터 설립을 통해 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

도록 남선교회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동탄광림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잠비아선교센터도 구축되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지로 자리 잡도록 기도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비전세미나 직무교육 강사로 나선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은 '북한의 인권과 선교'에 대해 강의하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빠르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힘과 자력을 보았다고 말했다. 1인 독재 체제의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경제 체제가 묵인되고 한류 드라마가 비밀리에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재에 앞장섰던 군부 세력도 서서히 교체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면서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할 시기임을 역설했다. 평양 출신인 태영호 국회의원은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후 외무성 8국과 주 영국공사로 근무했었다.

2부 순서에서는 스테반, 디모데, 바울, 웨슬리 등 선교회별로 모여 남선교회 조직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분을 가진 교회 임원들이 광림의 전통을 지키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며 봉사와 전도, 구제에도 힘쓰자고 결의했다.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되고 있다.



광림 4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
3월 13일(주일)부터 1단계 Knowing Jesus, 2단계 Following Jesus가 진행 중이다.



남선교회총연합회 3월 월례회
3월 27일(주일) 남선교회총연합회 3월 월례회가 열린다.

담임목사 동정



- 3/15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서울남연회 소공천위원회
- 3/16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 3/17-18 감독회의
- 3/21-22 서울남연회 사모힐링캠프
- 3/23 군선교회업무협약회의
- 3/24 중보기도자 임명예배
감리사협의회
- 3/25 감리교군목파송예배
남연회부흥단장 이취임예배
- 3/27 유아세례
충신교회 장로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이득섭 기자

새가족을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다

3월 13일, 새가족위원회 세미나 개최



새가족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는 3월 13일 주일 3부 예배후 오후 1시 30분부터 시온 성전에서 새가족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53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새가족위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한정희 사모는 "새가족을 처음 대할 때 결코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믿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따듯이 대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로서 내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음 안에 살아야 그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다음은 양육

자로서 새신자가 교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 주고, 교구에 소속되어 속회와 선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 등 구체적인 것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중보자로서 그들의 영과 육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범사가 잘 되도록 중보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상국 장로는 새가족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가이드와 인사 및 전화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총무를 맡고 있는 심재필 권사는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현재 새가족위원회는 양육부와 지원부, 영접부, 애찬팀, 교육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은 믿음의 본이 되고 섬김의 자세가 되어있는 추천받은 성도들로 교구당 1~2명이 봉사하고 있다. 양육부의 위원들은 매주 1회 새가족을 만나 사랑으로 돌보며, 새가족의 8주간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수료시 교구 선교회 및 속회로 연결시킨다.

지원부는 새가족 위원의 육성과 양육부 등 기타 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영접부는 새가족 접수와 예배시 새가족 환영시간의 업무를 담당한다. 애찬팀은 새가족에게 대접받는 느낌을 갖도록 밝은 모습으로 환영하며, 교육부는 새가족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준비를 한다.

한상국 장로는 "그동안 매년 초에 새가족위원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간 하지 못하였다. 기존 봉사자들과의 새로 봉사를 하게 된 위원들도 있는데 평소 잘 하는 업무이지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숙지하기 위해 이번엔 모임을 갖게 되었다. 위원들 모두가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새가족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 새가족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했다.



삶의 고비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

2022년, 교회학교 교사로 35년 근속을 하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뒤 돌아보니 삶의 고비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역자의 기도와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교사는 결혼 후 시어머니의 반대로 못하게 되고, 본의 아닌 휴직으로 광림교회 제단과 예배를 사모하며 딸아이를 업고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4회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강력하게 시어머니에게 '아내는 교회학교 교사였던 사람이라 교사로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건강도 회복된다'고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딸을 업고 교

사대학을 다니며 유아부에서 봉사한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많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루어주심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남편은 1년 차이로 암 진단을 받고 이후 항암치료과정에도 하나님 은혜로 실력 좋은 의사분께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폐암이 척추로 전이되어 응급실로 갔지만 담당 의료진이 없어 애태울 때 신경외과 과장인 장로 의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구와 부서에서 기도로, 물질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지지와 공동체의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7년 30년 근속을 할 때 남편의 폐암과 척추암이 재발되고,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한지 두 달 만에 남편은 소천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의 분가, 친정엄마의 심장 수술, 우울증 등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죽전으로 이사 온 후 코로나를 겪으며 교사를 그만둘까 했습니다. 2021년 교사임명예배 전까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부서 전도사님과 부장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35년 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교사를 하던 중 광림남교회에서 1부 헌금위원 봉사를 하게 되어 본당 유아부 노랑반을 한 달간 다른 선생님께 부탁하려했지만, 부장님께서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독려해주셔서 공백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서 선생님들과 교구분들이 기도해주셔서 35년 근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손자를 돌보며 죽전에서 본당까지 택시를 타고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봉사를 마칠길 기도합니다.



정명부 권사(유아부)

앞으로도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길 기도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이들 눈 속에서 당신 모습 보기 원해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이 아이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교사의 길을 이렇게나 오래 걸을 줄 몰랐습니다. 처음 교사임명을 받던 임명예배에서 30년 근속하신 분을 보면서 '난 5년이나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아마도 이 노래 가사가 제게도 꿈이 되었나봅니다.

교사를 하면서 감사한 순간은 성인이 된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다시 마주치는 그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만났기에 중·고등의 혼란한 시기를 잘 견디고 예배의 자리를 지

키고 있는 그 친구들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예배시간에 이리뒹굴 저리뒹굴하던 친구들이 함께 교사의 자리에서 있음도 감사합니다.

같이 교사하자고 했을 때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친구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라과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한 친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준 친구도 감사합니다. 훌쩍 커버린 키로 웃음지으며 '선생님, 이렇게

작았어요?'하던 친구도 감사합니다. 성가대와 찬양단 연습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를 하나님께 드리더니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적을 수 없을만큼, 교사가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모든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날카롭고 모나고 부족한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준 동료 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상상도 해 본 적 없는 교사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리도 긴 시간 이 길 위에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분으로 가장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김맑음 집사(초등2부)



2022년
봄학기
교육프로그램

프레시온 전도학교

프레시온 전도학교에서는 관계전도의 실제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며, 강의와 조별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 3월 27일부터 4주간 매주 주일 14:00~16:00, 장천홀에서 김요섭 목사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광림 4 Steps 리더교육

광림교회 영적리더(임원, 속장, 선교회장)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Knowing Jesus, 2단계 Following Jesus가 진행됩니다.

• 3월 13일부터 매주 주일 14:00~16:00, 1단계는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A에서 유계석 목사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2단계는 본당 1층에서 박중섭 목사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츄즈라이프(Choose Life)

츄즈라이프는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츄즈라이프는 성경 전체의 개념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 3월 13일부터 10주간 매주 주일 09:00~10:00,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B에서 김우진 목사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어번던트라이프(Abundant Life)

어번던트라이프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성공공부입니다. 이번 학기는 건강한 속회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 3월 20일부터 10주간 매주 주일 11:00~12:00,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B에서 유용찬 목사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기초 교육

〈광림교회 청년부 LBS 봄학기 개강〉



광림교회 청년부는 3월 5일(토)부터 5월 7일(토)까지, 10주간 LBS(LFC Bible School)를 진행합니다. 이번 22년도 봄학기 LBS에는 크리스천 베이직II 강의가 열려, 기독교 기초 교리와 신앙을 배워갑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LBS 찬양팀의 찬양과 강의, 소그룹 나눔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 2가지 참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참여는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진행합니다.

현재 30여명의 청년들이 등록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천 베이직II은 작년 I에서 한 단계 발전한 내용으로, 기독교 기초 교리를 바탕으로 바른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 등에 관한 기초적인 크리스천의 신앙에 대해 알아갑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LBS에서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 합니다. 강의를 들은 뒤 참여자들은 매

주 새롭게 꾸려진 조 안에서 모임을 통해 강의에 대한 소감과 결단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앞(지)과 감동(정), 실천(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LBS 찬양팀장 정진우 형제는 “할 수 없다 여길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언제나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1교구 속장 김지현 자매는 “작년에 LBS를 수료하게 되면서 이번 기수는 넘어갈까 고민했었는데, 계획과는 다른 인도하심으로 인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매주 토요일 이번 LBS 강의를 통하여 작년과는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봄학기 LBS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롱! 안녕하세요. 청년 3교구 속장 서상혁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는 제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청년부 많은 지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었고, 많은 말씀을 찾아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를 홀로 두지 않고 예배와 기도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고, 선교와 수련회의 자리로 권면하고 이끌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불려서 저를 위해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2017년 이전에도 하나님은 저를 많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우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어느 날 벨벳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상혁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 상혁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안에서 제 바람들을 외치고 있었고 그 바람대로 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음성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랑한다고만 하시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청년부 동역자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얘기할 때면 너무나 즐겁게 들어주는 이들을 불러주셨고 마지막에는 항상 “와, 상혁아! 많이 성장했다”라고 뿌듯해하던 동역자들의 사랑 덕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속회와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부족함을 채우셨고 헌 옷을 새 옷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광림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담임목사님, 김주송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상혁 속장(청년부)

<아펜젤러 선교사 - 5>

아펜젤러 선교사의 조선인 사랑과 성경번역



아펜젤러 선교사는 매우 사교적이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 사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라온 문화와 전혀 다른 조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족은 마치 투명한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으며,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창호지가 아닌 유리창이 있는 선교사의 주택 밖에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유리창에 얼굴을 맞대고 집안의 신기한 것을 바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은 자신들의 행동이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먼저 조선인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말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언어에 재능이 많았는데, 독일계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일어도 모국어처럼 할 수 있었으며,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도 잘 했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언어에 관심과 재능이 많았던 그는 한국어 배워 성경번역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1900년에 완성되어 봉헌된 '신약전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족

1887년 성탄절에 처음 한국어로 설교했으며, 1890년에는 로스역 성경 개정판인 ‘누가 복음전’을 출판하고, 1892년에는 ‘마태복음전’을 출판했습니다. 1893년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다섯 명이 성경번역 자회를 구성하고, 마침내 1900년 한글 신약전서를 완성하여 정동제일교회에서 완역된 신약성서를 봉헌했습니다. 그는 1885년 조선에 와서 1902년까지 17년간 밤낮없이 조선인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사순절을 기도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 목회현장 -



김우진 목사(10선교구)

따뜻한 봄의 기운이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은 도래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차가운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성도님들 중에도 확진되거나 격리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0선교구는 이런 사순절 기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한 구절과 적용점을 보내 드려볼까', '사순절 갈보리기도회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드려볼까'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에겐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침을 여는 사순절 기도>입니다. 너무 무거운 기도가 아닌 일상의 언어들로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을 1분 분량으로 녹음하여 매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중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주님,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친구로, 고아에서 아들삼아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아침을 여는 사순절 기도>를 통해 10선교구 성도님들이 따라서 기도를 하다보면 위로도 얻고, 깊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도님들에게 기도는 하기 싫거나 귀찮은 영역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올바르게 기도할 방법을 몰랐던 영역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짧아도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차가운 겨울도 따뜻한 봄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아픔도 부활의 소망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 남짓 남은 이 사순절의 아침을 기도로 열어가 보면 어떨까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광림남교회

교회학교, 어와나 입단식 열려

어린이들 신앙 훈련과 교육의 장으로



토요일 오후!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봄을 시샘하듯 눈이 내리며 꽃샘추위가 불어오는 이때에 광림남교회 교육국 2층 어와나 예배실에서 스팍스(7세~9세), 티엔티(10세~13세) 어린이들의 어와나 입단식이 진행되었다. 꽃샘추위와 갑자기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여한 7명의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다. 3월 5일 어와나 첫 출범식부터 입단식까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김호영 목사님, 기도와 많은 관심으로 섬겨주신 권정숙 장로님과 김영덕 권사님, 홍보사진을

담당해 주신 박진서 권사님, 남교회 어와나 탄생에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에서 헌신하신 윤선옥 조정관님, 그리고 어와나 선생님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애쓰신 한준구 전도사님까지, 사순절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린이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순종했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입단식은 소그룹을 먼저하고 게임 후 대그룹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스팍스, 티엔티 입단과정을 잘 마친 어린이들에게 교재와 단복, 수료증이 증정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임시간은 릴레이 경기, 컵 쌓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게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체력과 운동수행능력까지 향상시켜 건강한 신체성장발달에 도움을 준다.

단복을 입고 수료증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마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 지켜보는 내내 선생님들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다.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첫출발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어와나를 통해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 세상교육을 위해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학원도 보내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자녀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와나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어린이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앙학원이다.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기에 신앙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이 땅 위에서도 축복받는 길이 될 것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와나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길 기도한다.

이원희 집사(광림남교회)

2022년 중보기도자 임명예배

영적 파수꾼으로 결단한 시간, 임명식 및 개근상 시상



중보기도위원회(위원장 김도옥 장로)는 3월 24일(목), 오전 10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2022년 중보기도자 임명예배>를 열었다. 코로나 확산시기임에도 300여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참석하여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중보기도자들에게 개근상시상 및 중보기도자 임명식을 가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2022년도 중보기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제단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있기에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은 먼저 주님만

이 나의 주인이시더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내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올 한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자의 귀한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중보기도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활히 진행되게 하는 강력한 엔진역할을 한다. 300여명의 광림 중보기도팀은 7개조로 나뉘어 하루 한조씩 2~3명이 한팀을 이뤄 1시간 30분~2시간 가량 기도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전도사와 조장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철야를 한다.

광림교회 중보기도실은 선교, 신앙, 질병,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물질적 기타 법적인 문제 등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 관한 기도제목과 교역자들을 기도로 보필하고 있다. 주일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집중된다.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1부부터 4부까지 중보기도실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김도옥 장로는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길 원합니다.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영적성장을 체험하고, 응답해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중보기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중보기도실은 본당 1층 중앙통로 왼편 끝에 있으며, 기도요청은 중보기도실 앞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타교회 성도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도 요청할 수 있다.

<중보기도 요청 및 문의>
TEL : 02-2056-5639
FAX : 02-2056-5640

백명순 기자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

강촌광림교회 1층 '베다니홀'에서 개별 방문 예배 가능



광림교회 경조위원회 (위원장 송병제 장로)가 주최하는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 해마다 봄, 가을

한식과 추석에 합동추모예배를 드리던 유족들은 삼 년째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더 하고 있다. 당분간 합동추모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성도들은 개별적 방문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감람동산은 2007년 8월 '모태에서 천국 소망까지'의 광림교회 목회철학으로 성도들의 전 생애에 걸친 영적 돌봄을 위해 봉헌된 자연친화적 기독교 장례문화 시설이다.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감람동산은 아름다운 조각물과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유족들은 고인을 위해 두 팔을 벌려 품어 주시는 예수님 형상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감람동산은 올해 경춘로부터 이어진 주 진입로 매입으로 행정적 제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성도들의 이용이 더 수월해졌다. 또 주차장, 편의 시설들을 개선한데 이어 올해 자연장 뒷산을 기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감람동산을 더욱 자연친화적 시설로 변화

시킬 예정이다.

유족들을 위해 마련된 강촌광림교회 1층 '베다니홀'에는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새롭게 바뀐 디지털 명패기에 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스크린에 기존 명패와 이름, 생년월일, 소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 메뉴 중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고인을 추억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은 추모 글도 최대 50개까지 업로드 할 수 있다. 추가 사진 등록은 고인의 이름과 함께 이메일 (klmckrds@gmail.com)로 전송하면 된다.

베다니홀 이용은 오전 9:00~오후 5:30 까지 개별 방문이 가능하며, 소예배실에서 가족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입장 시에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금지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감람동산: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771-79(안보리 863번지)

이상희 기자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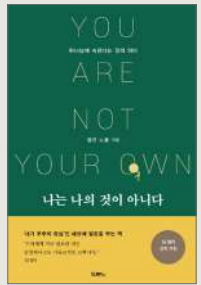
책으로 쌓는 교양



[한 번에 한 사람]

키일 아이들면 지음

이 책은 숫자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혁신적인 사랑법, '한 번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 누군가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시간이 멈추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신다. 저자는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교회와 신앙인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더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도 그분 앞에 선 한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습관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예수님을 따라 한 사람 앞에 멈추는 것, 당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앨런 노블 지음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늘 의미를 찾는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감을 찾기도 하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수량화해서 수치로 보여 주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는 곧 결과물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며, 내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과 사회는 수치화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거나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길 바란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소현수 기자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들



지난 3월 초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강원경북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기치 않은 대형화재로 집이 소실된 이재민들의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광림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은 3월 10일 울진군을 방문해 재난 지원금을 전달하고 긴급 구호 물품을 나누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했다.

광림교회가 준비한 비누, 샴푸 등 생필품과 식품, 옷, 영양제, 마스크 등이 한 박스에 담긴 구호 물품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한 선물이 되었다. 200개의 구호 박스에는 광림교회 성도들의 기업에서 후원한 10만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여선교회도 정성껏 헌금을 전달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성도들도 치약, 칫솔, 수건, 마스크, 김 등 물품 지원과 헌금을 아끼지 않았다.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 광림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세근 장로(장로회 회장)는 식사대용으로도 좋은 담터 호두아몬드올무차, 쌍화차 등을 대량으로 지원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산불 진화작업으로 피로한 몸을 녹여주었고 밤낮 불과 사투를 벌인 소방관, 군인, 경찰, 공무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권기범 집사(실업인선교회)는 동국제약의 크림과 로션 등을 후원했다. 권 집사는 "하나님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마 6:3)'고 하셨듯 조용히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전했다.

이영재 집사(16교구)는 영화유통의 티셔츠와 썬크림, 스킨, 로션 등의 화장품을 다량으로 지원했다. 이 집사는 "하나님께서서 일감을 주셔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시니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장의 옷과 화장품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손길이 피해지역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량의 의류를 지원한 이향노 권사(53교구)는 "나눔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이웃의 아픔이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앞장서서 도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가 슬픔에 잠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전쟁으로 고통에 처한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현수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6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 마태복음 3장 1-2절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일로부터 18년 정도가 흘렀다. 그 무렵 요단강 하류의 광야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의 말에 따라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의 아들로 예수와 친척인 셈이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를 주는 요한의 이름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모습은 마치 예언자 엘리야를 상기시킨다고 했다.

세례 요한이 격정적으로 두 팔을 흔들며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고 설교하면 마음은 굳은 죄인들조차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꼈다. 곧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세례 요한의 지지자가 늘어가고 영향력이 커지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였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조사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그럼 예언자 엘리야인가요?”

“아니요.”



▲ 광야의 세례 요한_ 헤롯 왕 시절, 광야에서 성장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헤르메트렌 토트 세인트 안스의 작품.

“그럼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아 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메시아가 올 날을 대비하여 그를 먼저 세상에 보냈을 뿐이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뿐이요,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은 저보다 몇 배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클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 세례 요한_ 어두운 검정을 배경으로 오른손 검지는 위를 향하고, 왼손은 가슴에 댄 채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평생을 걸쳐 창안한 스푸마토와 키아로스쿠로의 기법이 사용된 작품으로, 묘한 웃음을 짓는 세례 요한의 표정이 신비로우며 얼굴 묘사가 섬세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